

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서울	응시횟수	재수
임용시험 준비시기	대학원 1학기부터 위상미술 가볍게 듣기 시작~본격적 으로는 4학기 겨 올방학	합격 준비기간	_2_년__개월	시험준비 병행여부	올인

● 초수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4.67]점 / 전공(교육과정) [41]점
최종 합격점수	[55.67]점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재수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7]점 / 전공(교육과정) [57]점
2차 합격점수	90.54
최종 합격점수	[164.54]점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합격수기 작성

작성 예시를 참고,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꼭 아래의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학력: 예고 졸업/ 서울 소재 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졸업

실기 이력: 홍대 앞 예중예고 입시 강사, 성인 취미미술 강사, 아동미술 강사, 교육대학원 준비 학원 실기 강사

성격: MBTI ISFP로 철저한 계획표를 작성하는 성격도 아니고, 꼼꼼한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끈기와 성실함이었어요. 대학원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업 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열람실에서 보냈어요. 이게 나중에 본격적 임용준비에 있어서 건강 악화의 지름길이 되었지만.....

***임용준비:**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목표가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초수로 합격하겠다는 원대한 목

표를 가짐

-2021 대학원 1학기: 대학원 조교+가장 유명했던 위상미술 가볍게 수강

대학원 강의 수업도 듣기 전이었으므로 로웬펠드...? 그게 누구야...? 신세계가 펼쳐짐

-2022 대학원 3-4학기: 대학원 조교+서미, 동미, 표현파트 위주로 위상미술 공부+ 대학원 동기들과 복습 스터디 진행(강의 들은 후 퀴즈 내기) + ㅇㅈㅇ교육학 가볍게 수강(복습x)

-2023 대학원 5학기~8월 졸업(초수): 조교 그만둬. 본격적인 시작으로 타강사 커리 진행+ ㅇㅈㅇ교육학 1년 패키지 → 1차 불합

-2024(재수): 위상 n수생 패키지+ ㅇㅈㅇ교육학 하반기 문풀 패키지

결론: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시라면 굳이.. 1학기 때부터 강의를 수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면 빨리 합격하겠지? 라는 열정만 넘쳐서 맨땅에 헤딩 수준으로 그냥 냅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여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랐어요. 대학원 1-3학기 정도는 대학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운동으로 체력 꼭 길러 놓으시고!! 4-5학기 때부터 점차 가볍게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임용 공부만 길게 하는 느낌이고 나중에 달릴 힘도 떨어지고.. 건강만 빨리 악화되었던 것 같아요.

<초수>

1. 교육학 학습방법

전반적: ㅇㅈㅇ교육학 풀커리 진행

강의: 1~6월까지 평일에 인강으로 듣고, 문풀때부터 주말 직강을 나갔어요. 공부법은 교육학 교수님께서 하라는대로 진행했어요. 오전에 교육학 강의 이틀 듣고, 그 다음날 오전에 누적 복습하는 식으로요.

2. 시기별 교육과정/전공 학습방법

1) 1~2월

강의: 대학원 겨울 방학이었으므로 ㅇㅈㅇ 기본 이론 강의 직강 수강+ 이해 심화시키기 위해서 ㅇㅈㅇ유튜브 강의 수강

교육과정: 개강 하면 시간 없을것 같아 방학 때 15교육과정 중, 고 일반의 성취기준,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등+ 22교육과정 역량까지 모두 노래 붙여서 암기 완료.

스터디: 오전 8시 열람실 착석 인증 생활 스터디 진행

2) 3~4월

강의: 학기가 시작되면서 인강으로 전환. ㅇㅈㅇ 기출강의+ 교과서 분석강의 수강. 그러나 기출강의를 듣는것은 크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강의 듣지 않고, 냅다 혼자 객관식 기출 풀었음. 교과서 분석 강의는 빨리 들음. (추천x) + 1-2월에 했던 이론 강의 회독하며 복습

교육과정: 이미 1-2월에 외워뒀으므로 그냥 톡톡히 점심 먹을때나, 식사 후 산책할때 혼자 따라 부르며 안 잊혀지도록 부름. 수험기간에는 교육과정 노래 부르는게 가장 신남..

대학원: 개강 시작.. 과제에 치이기 시작

3) 5~6월

강의: 大 模고 직강+용어사전 인강+ 6월에 위상미술 5-6월 모고 인강 수강+ 기출
교육과정: 15 고등학교 미창, 미감, 22 구성체제, 중학교 성취기준 암기
대학원: 과제+ 연구사례보고서 쓰느라 정신 없음

4) 7~8월

이론: 타강사 모고 듣지않고 문제만 뽐음 +회독 시작+ 위상 미술 7-8월 모고 직강 수강 + L
모스 단권화 추가 + 합격생 서브 암기
스터디: 생활스터디+표현 문제 내기 스터디
대학원: 여름방학 시작, 연구사례보고서 막바지 마무리
교육과정: 암기한 교육과정 매일 아침 30분동안 인출하고 공부시작

5) 9~11월

이론: 이때는 모고 성적도 오르지 않고, 이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패키지로 끊어두었던 강의
모두 듣지 않고 혼자 회독과 이론에 집중함. 따라서 문제풀이나 모고를 따로 수강하지 않음.
혼자 계속해서 회독 돌리고, 인출하고 무한 반복..
교육과정 인출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 주 2-3회 인출로 줄임

<초수 실패 원인>

① **학습 전략 부족-여러 강사를 골라 들음** : 위에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개념의 이론이 머릿속
에 정리되기 전부터 이 강사 듣다가 저 강사 듣고, 합격생 서브를 암기하는 등의 잘못된 공부
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은 최소 재수 이상, n수 분들이 많이 하는 공부
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초수 때부터 여러 강사를 듣다보니,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이것저것 다 챙기려 했고, 그러다보니 정작 기본적인 것은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을 했
던 것 같아요. 또한 한 강사는 3월에 하나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다른 강사는 6월에 가르쳐 주
는 등 한 개념을 가르쳐주는 시기가 다른데, 저는 3월에는 이 강사꺼 듣고, 6월에는 또 다른 강
사강의를 듣다보니 양쪽 다 개념을 놓쳤던 것 같아요.. 초수라면 한 강사의 커리를 꼭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다른 강사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면 주요 강사의 커리를 따르면서, 추
가적으로 듣는 것을 추천해요

② **열정 과다로 체력 관리x** : 대학원 다니면서부터 임용공부를 했고, 초수 때는 매일 아침 7시
에 일어나서 (대학원 열람실까지 40-50분 소요) 8시까지 학교 열람실에 착석 인증을 하고, 밤
11시 열람실 문닫을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12시 가까이에 도착을 했고 잤어요. →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번아웃도 많이왔고,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아 7-8월부터 뒷 목, 어깨가 아
프기 시작했어요..9-10월 되니 필기를 할 수도 없고, 목이 아프니 머리까지 아프고.. 공부에 집
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ㅠㅠ그래서 각종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ct촬영.. 했으나 나아
지지가 않았어요ㅠㅠ안그래도 공부가 힘든데 아프니까 더 서럽고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에 집
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속상했고 멘탈이 나갔던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달려야 하는
10월-11월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회독하고 멘탈 잡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③ **암기 위주의 공부** : 타 강사의 모고가 책을 통째로 외우는 식의 채점이다보니, 그것에 맞추어 책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 흐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하지 못한채 암기만 이루어졌고,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④ **상반기에 너무 달려서 하반기에 지침**: 이 시험은 장기적인 마라톤으로 상반기에 걷고 달림을 반복하다가 하반기에 미친듯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상반기에 열정과 다로 미친듯이 달리다가.. 하반기에는 체력관리가 안되어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ㅠ

⑤ **기본적인 개념, 남들 다 맞추는 문제 틀림**: 1차 불합 이후 2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2월 전까지는 충분한 휴식 후 2024 문제에 대해 답안 복기를 하고,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표로 분석했어요. (공부할때 만큼은 j가 되고자 노력했어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남들 다 맞추는 기본적인 문제를 틀렸다는 거였고, 그것만 다 맞춰도 1차 컷은 넘길 수 있었더라구요. 분석 후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 할지 1년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장지연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내가 부족한게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듣고, 1년 계획표에 보완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불합했다면,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공부의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불합 요인을 분석한 뒤에 했던 다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강사의 1년 커리를 무조건 믿고 따르자!! 남들이 누가 좋대, 뭐가 좋대~ 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자!

둘째, 지엽적인 것 말고 상, 중 위주의 기본개념 무조건 먼저 챙긴 뒤에 하 수준 보자.

셋째, 충~~분한 이해를 먼저 하자.

넷째, 공부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공부를 하자.

다섯째, 체력관리도 공부의 일환이다. 운동 필수로 하면서 건강과 멘탈 잡자.

<재수>

1. 교육학 학습방법

1-2월: x

3-4월: 강의 x, 한주에 한 영역씩 혼자 ㄱㅈㅈ핵심쑥쑥 회독했어요. 공부 끝에는 목차보고 말로 해당개념 인출하기. 가볍게 읽으면서 관련정착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어요.

5-6월: 강의 x. 핵쑥은 요약본이라 기본서 회독 시작. 교육학 이론의 배경지식 좀 더 맥락적 이해하기 위함. 맥락적 이해에 필요한 내용 핵쑥에 단권화

7-8월: ㄱㅈㅈ 문풀 인강. 모고 풀이하면서 부족한 영역, 틀린 개념 왜 틀렸는지 분석 후 해당 개념 복습했어요. 모고에 출제된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구조도에 소주제를 적어 놓고 목차만 보고 말로 설명했어요. 개념, 장단점 등을 남에게 설명해주듯이 말로 인출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9월: ㄱㅈㅈ문풀 인강. 전공에 집중하다보니 교육학 문풀을 챙기기 어려워서 문제 풀고 서로 채점해주는 스터디 진행했어요. 모고 분석은 7-8월 처럼 계속 진행하고, 개념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 2회 정도 오전 시간에 교육학 보는 식으로 시간을 확 줄였어요.

10월-11월: 초수 때 만들어 놓은 교육학 서브로 하루에 한 영역씩 회독 돌렸어요. 회독은 돌리
되, 문풀은 11월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문풀 했을때 여전히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
과 새로운 개념은 따로 공책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고 가서 봤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24기출 시
험지를 들고가서 시험 전에 잠깐 머리 푸는 식으로 활용했어요.

2. 시기별 교육과정/전공 학습방법

12~1월: 2024 불합 요인 분석, 부족한 영역, 어떻게 채울 것인지 1년 계획 짜기, 못만났던 친구
들, 가족들 만나며 신나게 놀기(but 신나지 않음 ..고생했던 1년과 다시 할 1년을 생각하면 눈
물이 앞을 가림)

2월: 위상 1-2월 강의 인강 수강. 이미 1월 강의가 시작된 뒤였기 때문에 강의를 2월 내에 모
두 듣는 것을 목표로 강의 듣고 가볍게 복습하면서 공부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동안 휴식을 취
했으니 나 이제 공부 다시 해볼게~ 라는 것을 몸에게 다시 익혀주는 정도의 공부만 했습니다.

3-4월: 장지연 교수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했어요. 이때 교수님께서 2024 시험문제를 바탕으로
취지파악이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한 주 공부계획을 짜주셨어요. 이때
말씀이 너무 따스해서 큰 힘이 되었다는... 아무튼 그 계획을 바탕으로 위상 심화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로 다시 복습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심화서 인강 하루 뒤 복
습, 그 주에 했던 것 한 주 복습, 심화서의 진도 거꾸로 기본서 한달 1회독 하는 식으로 복습
진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전 영역을 기억에서 많이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오전 9시부터 6-7시까지만 공부하고 9시까지 수영갔다가, 오늘했던 것 총 복
습 1-2시간 하고 잤어요.

이 시기까지 위상에서 기본강의, 심화강의 들으면서 제가 초수 때 암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
되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 기본기 뼈대가 다 잡혔던 것 같
아요. 특히 위상쌤과 장지연 교수님께서 이론 처음 부분에 잡아주시는 판서 흐름은 개념 이해
하는데 진짜 좋아서 공부 시작할때 항상 먼저 봤었어요.

교육과정: 초수 시절 15교육과정, 22교육과정의 역량, 중학교 내용요소, 성취기준까지 외워뒀기
때문에 22 고등 일반 내용요소, 성취기준 암기 시작했어요.

5-6월: 5-6월 모고, 필독서 직강 수강.

5-6월 강의는 진짜 하나도 거를 것이 없습니다... 5-6월 모고로 취지파악, 도판분석, 문제 적용력
기를 수 있었고 이때 문제는 11월까지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필독서는 진짜 들으면서 유레
카를 몇번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1,2,3,4월 강의에서 각 영역이 이해가 되었다면, 필독서에서는
영역과 영역을 서로 관련지으면서, 머릿속에서 각각의 서랍에 들어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총 집
합시키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던 모든 배경적 지식들이 하나로 딱
연결되었고, 와 이게 그거였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거였어? 하면서 OMG !!! 외쳤네요.. 그리
고 초수 때 단순히 궁금했던 부분들 (ex: 불교는 왜 부처가 여러명이지.. 고증학, 양명학 차이는
뭐지 등) 진짜 중요하지 않은데 단순 궁금증으로 열심히 인터넷 뒤져서 혼자 찾아봤지만, 중요

하지도 않고,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필독서 수업에서 수험생이 궁금해할 부분을 진짜 윤진 교수님의 명료한 강의로 설명해주시는데, 진짜 속 시원하고 개념들이 더 깊이있게 이해 되면서, 공부도 훨씬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필독서 수업에서 해주셨던 흐름 구조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11월까지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 기본서에 모두 단권화했어요.

교육과정은 22중, 고 핵심아이디어, 성취기준 고려사항 노래 붙여 암기했어요.

7-8월: 7-8월 모고 직강 수강. 기출강의 인강 수강.

모의고사를 항상 실제 시험처럼 임했고, 월요일 하루를 통째로 빼서 모의고사 복습시간을 무조건 가졌어요. 내가 부족한것이 무엇인지, 왜 틀렸는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공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7-8월 문제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체 내용을 문제에서 다뤄주셔서 강의 들으면서도 저절로 복습이 되었고,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기출 강의를 통해서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기본서에 표시하면서 올해 무엇이 나올지 나름 예상도 해보았어요. 윤진교수님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해주셔서 좋았어요! 이 시기에 윤진쌤이 인출표를 나눠주시는데,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타이핑으로 모두 적어 인출하고 채점했어요. 모르고 있거나 빠진 부분을 빨간 펜으로 적으면서 암기하고, 부족한 부분 메꾸려고 노력했어요.

교육과정은 7월까지 입에 붙도록 암기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8월부터 암기한것 타이핑하며 인출 시작했어요.

9-10월: 9-10 실전 모고 직강.

모고 복습은 7-8월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기본서, 심화서 회독했어요. 회독하면서 5-6월, 7-8월 모고 다시 복습하고, 교육과정 인출 계속 하고.. 무한 반복이었어요.

백지 인출은 3월부터 꾸준히 했는데, 10월부터 전 영역 백지 인출 하면서 표현은 저녁시간에 따로 빼서 회독하고 백지 인출 했어요. 이때는 순공시간 최대 13시간 채우면서 헬스는 거의 못갔고 목이랑 어깨가 더 안 좋아져서 스터디 카페 바로 앞 한의원을 주 2회씩 다니면서 침맞고 부항뜨고 다시 스카 가서 공부했어요. 임용고시 내내 파스는 나의 친구..

11월: 11월 파이널 모고 직강. 마중물, x파일 인강 수강.

이때도 역시나 기본서, 심화서 회독 계속하면서 모고 복습하고, 백지 인출했어요. 이때는 11월 문제를 분석하거나, 마중물, x-파일에서 다뤄주는 것들을 단권화할 시간이 없어서 처음보는 개념들은 공책에 따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는 이때까지 백지 인출한 A4용지와 따로 정리한 공책만 딱 들고 갔어요.

3. 2차 시험 학습방법(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

1) 교직적성 심층면접

면접은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면접에 시간투자를 가장 많이 했어요. 1차가 끝나고 12월 2주 정도는 면접 스터디원들과 면접 주요 이론들, 시책 내용 정리하고, 자신의 교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공유했어요. 또 행복한 교육 내용도 요약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공유했어요. 그 후 면접레시피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말하는 연습 하고, 1차 발표가 난 뒤에는 저 빼고 모두 되지 않아서, 면접 스터디원들을 다시 구했어요. 주 2회 3시간씩 스터디 했고, 구상형 문제를 10분 안에 모두 풀고 한 사람씩 답변 하고, 피드백 해주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쌤들이라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때 스터디 했던 쌤들 모두 합격했네요. 그리고 실기시험이 끝난 후에는 5-6일정도 수업실연이랑 면접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노랑진 스터디룸을 6일 모두 8-9시간 풀로 결제해두고 면접 준비랑 수업실연 준비를 했어요. 실기가 끝난 후 매일 대면으로 면접 스터디를 진행할 분을 따로 구했고, 즉답형 전화스터디도 따로 진행했어요. 결국 실기 끝나고 6일정도를 매일 면접 스터디만 3개씩 돌리면서 준비했어요.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수업실연은 위상에서 같은 서울 지역 4명의 선생님들로 짜주셨어요. 한분은 1차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3명 모두 합격해서 연수 동기가 되었어요ㅎㅎ 스터디는 주 2회 2시간씩 역대 기출로 진행했어요. 24~ 16기출까지 했었고, 마지막에는 게히건 비평적 탐구 모형이나, 귀납적 사고 모형 등 기출에 많이 없던 내용을 위상에서 만들어주신 모고로 연습해서 대비했어요.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어서 어떤 지도안이던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현장에서 능청스럽게 어떤 말이던 하게 되더라구요. 또 수업실연 시험 전날에는 15기출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알고 지내던 현직 교사 2명의 쌤들에게 영상 보내드려서 피드백 받았어요. 이때 기출 내용이 입체표현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입체표현? 있었어서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엄청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 실기

실기는 개개인에 따른 능력과 기본 소양이 다르기 때문에 실기학원 가서 상담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실기 합격수기는 블로그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3) 전반적인 학습 방법이나 꿀팁

첫번째는 깨어있는 시간 공부 생각만 하도록 집중하기! 저는 암기할 것들은 옷장 벽에 붙여놓거나, 화장실, 냉장고에 여기저기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았어요. 화장실에는 물에 젖을 수 있으니까 투명 박스테이프로 이중 붙이면 방수가 되어 절대 젖지 않고 샤워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자기 전 샤워하면서 보고,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또 보고, 옷장 벽에 있는 것은 로션 바르고 옷 입으면서 보고, 냉장고 열어서 물 먹을때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거 보고.. 또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말로 인출해보고, 인출되지 않는 것은 집가서 다시 한번 보는 등 모든 깨어있는 시간은 공부하는데 활용하도록 노력했어요.

두번째는 그 전날 공부한 것을 다음날 오전 시간에 복습하는 것! 저는 오전이 가장 정신이 맑고 집중이 잘되어서 전날 공부한것을 오전에 공부하면 기억에 엄청 오래남더라구요.

세번째는 말로 인출하기! 교육학, 전공 둘다 그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설명해주듯이 해당 개념에 대해서 말로 하다보면 잠도 안오고 집중도 잘되고,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네번째는, 나만의 멘탈관리법 꼭 하기. 초수때는 유튜브에 전효진 쌤, 이지영 쌤, 이윤규 강사님 등 동기부여 영상을 계속 보고 열정을 지속시키려 했어요. 근데 재수때는 이런 열정을 가지기엔 마음이 힘들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나를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4. 자신만의 공부방법(어려운 문제 대비법, 슬럼프 극복,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도판 보고, 비벼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비벼쓰고, 생전 처음 보는 암기를 요하는 개념은 그냥 과감히 버렸어요. 진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다 맞추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초수 때 아파서 공부를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이 필사적으로 운동하려고 애썼어요. 3-4월까지는 매일 수영을 다녔어요. 수영하면 우울하고 가라앉는 기분을 전환시키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목 어깨 아픔이슈를 조금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 수영하고 하는 공부는 머리가 맑아져서 더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5-6월에는 수영을 중급반으로 올라가 너무 힘들고, 시간소요가 많이 되어 헬스장을 끊어 주 2회정도 다니고, 바람을 쐬고 싶을때는 한강 산책을 갔어요. 대신 운동하는 시간에도 무조건 교육과정 노래를 암기하고, 오늘 공부했던 것을 입으로 인출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5-6월부터 직강에 나오면서 매일 남아서 질문을 많이 했고,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다른 선생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았어요! 모르는 것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말고 교수님들 붙잡고 이해할때까지 질문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번외로 직강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친해 지시길 바라요! 저도 의도한건 아니지만 매일 직강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다보니 앞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모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자극도 많이 되고 어려운 점도 함께 나누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ㅎㅎ

5.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교재 활용 후기는?

위상미술의 강의는 모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심화 강의는 필수이고, 필독서 강의와 5-6월 모고 정말 좋아요. 깊이있는 이해를 하고 싶거나, 필독서를 읽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필독서를 보지 않아도 이 강의만 수강하셔도 되지 않을까..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위상쌤과 장지연쌤, 윤진쌤께서 이론 처음 부분에 잡아주시는 흐름도는 개념 이해하는데 진짜 좋아요. 11월까지 맥락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ㅎㅎ

그리고 모의고사는 4월 모고부터 시작하는 모든 모의고사를 A4용지로 단면 복사로 재출력해서 영역별로 재구성했어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끼리, 표현은 표현끼리, 서미는 서미끼리!! 그리고 한 면에는 문제, 다른 한쪽 면에는 나의 답안과 모범답안을 오려 붙여서 나의 답안에서 부족한 keyword가 무엇인지 보완했어요. 이렇게 하면 7-8월부터 영역별로 회독하면서 해당영역 모고 복습하는데 훨씬 수월해서 추천합니다! 또 모고 칠때마다 모고 분석표를 작성했어요. 해당 문제에서 취지파악 부족인지, 암기부족인지, 도판읽기부족인지, 문제 적용력이 부족한지! 등등 하나하나 체크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할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모아서 계속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부했어요. 맹목적으로 회독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 상황을 잘 알고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 공부를 하는것이 점수 올리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6. 희소/샘플러스 선생님(강사)께 감사의 편지 쓰기

7. 합격에 도움이 된 희소 학원 서비스는?

2차 준비하는 내내 학원 강의실을 빌릴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노량진 스터디 카페 너무 협소해서 수업준비나 면접 준비하기 진짜 힘든데, 희소에서 큰 강의실 빌려 연습할 수 있어 좋았어요. 큰 소리 내기에도 너무 도움이 되었고, 또 삼각대도 빌려주셔서 연습한거 촬영하기도 편했어요. 또 수업실연을 윤진 교수님과 현직 교사분들이 봐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더 자신감 가지고 시험 치르고 올 수 있었어요.

8.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초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n수 이신 분들도 많을텐데, 그냥 이 시험을 도전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너무 대단하고, 버텨낸 것만으로도 존경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모든 고시가 그렇듯 이 임용고시도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고 가족이나 친구 등..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도라도 당사자의 힘듦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나 스스로 감내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헤쳐나가야 하니까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저 또한 친구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세상과 단절한 채로 혼자 공부하다보니 수험생활 내내 어두운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이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쓸모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등등 이런 생각들로 자괴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산책하면서 길거리에서 엉엉 운적도 많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냥 눈물이 흘렀던 적이 많았어요. 그럴때는 이런 우울감이 드는 것이 나쁜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눈물 닦으면서 그냥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버텨내서 내년에 꼭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이랬다 ! 하면서 이야기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또 너무 합격만을 바라보고, 이거 합격 안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합격만을 바라보면 이 긴 과정이 더 힘들어 지는 것 같고 나를 더 옥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길만이 정답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너무 목매달지 말자, 그냥 이 과정 자체를 즐기자. 떨어지면 말고. 다른거 하면되지.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6월부터 고비가 왔는데, 진짜 그냥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엉엉엉 우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공책에 적었었어요. 그냥 가볍게 ex)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상쾌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이 덜 아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등등... 힘들어서 공부를 많이 못한 날에도 나 오늘 공부 많이 못했어, 하 진짜 속상해ㅠ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나에게 조금의 휴식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내일 더 집중해서 하자! 하면서 모든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일부러라도 노력했어요.

머리 좋은 자 노력하는 자 못 따라 오고, 노력하는 자 즐기는 자 못 따라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힘들때면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이 또한 감사하다.. 과정을 즐기자... 재밌다.. 너무 재

있다 ..하면서 계속 혼자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누가 합격해? 진짜 이 임용고시 해낸고야 만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생각 하려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시간이 훌쩍 다 지나와있더라구요.

이 긴 과정 속에서 좌절되는 순간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럴때마다 난 이미 선생님인데 과거로 돌아와 조금 더 공부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 멋진 선생님들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멋져 라고 토닥여주었음 좋겠어요.

내년에 꼭 교단에서 뵈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QnA

Q. 스터디는?

1. 생활스터디

구루미 캠프스터디를 2월부터 10명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몇분이 나가시고, 8-9명 정도로 11월까지 꼭 진행했어요. 하루에 최소 8시간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한 주에 하루는 반휴를 두어 최소 5시간, 한 주에 하루는 완전 휴식이 되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한 주에 반휴, 휴식, 최소 8시간 인증하기는 규칙이었을뿐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했었고(최대 12-13시간), 반휴 때는 하루 8시간 공부했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어요!

2. 전공&표현 백지 인출 스터디

7-8월 부터 11월까지 최소 하루에 한장씩 공부한 내용 백지 인출 하는 스터디 진행했어요. 타이핑 하던, 수기로 적던 본인 자유 였고 하루의 공부 끝에 오늘 공부한 내용 인증했어요. 7-8월에는 윤진샘이 나눠주신 인출장으로 타이핑해서 인출했고, 9-10월에는 a4용지에 수기로 꼭 적었어요. 채점해서 빨간펜으로만 적힌 것을 자기전에 누워서 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당내용 다시 봤어요. 자기전에 본 내용이 장기기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는 시간에도 나의 머리는 공부를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보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표현은 영역 별로 나누어서 매일 저녁 1시간~1시간 반 회독 > 1시간 인출> 스터디원과 서로 채점 순으로 진행했어요. 저녁먹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가장 머리를 적게 쓰는 표현을 회독했고 서로 채점을 해주는 것이여서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감 있게 빠르게 회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10월 11월에 진행했던 백지 인출장은 시험장에 들고가서 빨간펜으로 적힌것, 진짜 안외워지는 것은 형광펜으로 체크한 뒤 그것만 봤어요.

3. 3-4월, 5-6월 전화 스터디

이론 강의를 듣는 상반기 때는 복습용+어느 정도 암기용으로 전날 공부한 것을 오전에 2시간 정도 복습 후 인출하는 스터디 진행. 오전에 머리가 제일 맑았기 때문에 전날 공부한 것이 다시 복습 가능하고, 머리에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암기도 더 잘되었고, 전화로 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했어요. 답 못하는 부분은 체크해 놓고 계속 보았습니다.

4. 교육과정 인출 스터디

8월부터 주3회 암기한 교육과정 노래 인출 인증 스터디 진행했어요. 교육과정은 상반기까지 암기 무조건 해놓고, 하반기에는 인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은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은 그냥 시험 전까지 계속 무한 인출 하면 됩니다!
평가 방향, 교수학습 방향의 경우에는 빈칸 뚫어서 채워넣는 스터디 진행했어요.

Q. 필독서, 교과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교과서는 따로 보지 않았고, 필독서는 꼭 읽어야하는 김석 조각사, 클릭 시리즈 등은 피뎀프로 변환하여 아이패드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궁금한 내용만 검색해서 봤어요. 필독서는 암기보다 맥락 이해하고,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을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했어요. 필독서 모두 읽기에는 부담이고, 윤진샘 5-6월 강의만 보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Q. 기출분석 어떻게 했는지?

각 잡고 기출분석 하겠다! 하는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심화서에 있는 기출 내용은 무조건 여러번 풀어봤고, 하반기에는 해당 문제의 취지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고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할지는 분석해봤어요. 또 초수때 객관식문제부터 최근 년도 기출까지 빈출된 개념들 모두 이론서에 표시해 두어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 안나온 개념은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표시해두었어요.

ex) 객관식문제는 노란색 스티커, 디자인공예 문제는 초록색, 15-20까지 기출은 파란색, 21-24는 빨간색

또 위상팀 7-8월에 해주시는 기출 강의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출제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그 정도로만 봤어요.

Q. 서브는 만들었는지?

서브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초수 때 서브를 하반기에 만들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모두 서브로 만들 수 없을 뿐더러, 내가 만들면 빠지는 내용이 분명히 있더라구요. 당시에는 막판에 서브로만 돌렸는데, 빠지는 내용이 있어서 진짜 기본적인 내용도 틀렸던 경험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수능 공부도 서브를 만들어서 했고, 대학교 공부도 그렇게 했다! 하는 등의 본인만의 공부법이 확실하다면 개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반기에 전 영역 백지 인출 했던 것이 저만의 서브노트가 자연스럽게 됐었고,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암기했어요.

Q. 타 강사 문풀, 강사 책 봤는지?

초수 때 이미 여러 강사의 책들을 보고, 여러 문풀을 이것저것 봤기 때문에 재수 때는 다른 강사 하나도 보지 않고 한 강사에만 집중했어요. 대신 위상팀에서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초수 때 했던 타 강사 책 참고하긴 했어요.

Q. 마지막 11월 회독 주기는?

11월에는 x파일 등등 강의로 굉장히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ㅠ 강의 듣기에도 벅찬.. 그래도 빠지는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2배속으로라도 무조건 들었어요. 회독은 하루에 한영역씩 돌렸어요!

Q. 교육과정 암기 어떻게 했는지?

초수 때는 아침 8시에 열람실 착석 후 딱 30분~1시간씩만 투자해서 앞글자 따서 노래 만들기 (아침에 교육과정 하면 잠도 깨고 좋더라구요)→ 공부 마친 후 집 가는 길 지하철에서 따라 부르기→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 전날 교육과정 다시 따라 부르기→ 하루나 이틀 내로 암기 완료> 이런식으로 진행했어서 교육과정 암기에는 큰 스트레스 없었고, 지하철 이동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했어서 교육과정 암기에 큰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재수 때는 아침시간 말고 점심 먹고 난 뒤 졸린 시간이나, 집중 안되는 시간 30~1시간 정도 활용해서 노래 만들고,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이나 천국의 계단 타면서 암기했어요.

감사합니다.